

# “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

## ■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 교회는 일제 시 칼날같이 무서운 핍박도 이겼다. 공산주의 폭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를 배출했다. 그런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있다. 그 위기의 핵심은 죄다. 그 죄가 일만 악의 뿌리인 돈과 아담을 넘어뜨린 공명심이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예 사롭게 생각하고 위기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한기총이 왜 필요한가 차라리 해체하자는 이들의 소리까지 들려오지만 그들의 본래 목적은 해체가 아닐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까지 들려지는지 정말 눈물이 난다. 한기총은 친목단체도 사업단체도 아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봉사단체다. 개교단이 못하는 것을 교단의 공통분모를 찾아 섬기기 위해 조직된 연합단체다. 실행위원도 섬김위원이지 대표를 뽑는 위원회가 아니다. 현재 60여 개가 넘는 교단 협의체로 분과위가 30개가 넘는다. 사이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알고 보면 모두가 물욕과 공명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어쩌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모든 것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교회도 커지다 보니 허세를 부리기 위한 가짜박사, 세속적으로 향락을 취한 위선적 지도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욕을 못 이겨 금권선거 등을 자행하면서 돈을 썼더니 당선되더라는 해괴한 양심선언까지 나왔다. 그 돈은 누구의 돈이며 어디에 썼나를 묻는 진실게임이라도 하는 날엔 한국 교회는 박살이 날 판이다. 속히 회개하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 이대로 밀고 나가면 죽는 길 밖에 없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는 없고 면류관만 쓰겠다는데 문제가 있다. 불신사회조차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와 타락의 소굴로 바라보았던 중세기보다 덜하지 않은 오늘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전 회개해야 한다.

몇 천명을 거느리는 추기경 같은 목사들과 수십만을 대표한다는 교황 같은 위세를 부리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타락케 하고 있지 않은가. 불신사회에 덕을 세우기느커녕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누가 구해낼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재생하려면 홍역을 한번 치러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셨다.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다. 악마와는 아합하거나 타협치 말고 대적해야겠지만 주안에서 형제 된 성도와는 싸우는 것을 악마는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유능한 목사라도 싸우는 선봉에서 영웅적 투사로 선 사람들은 모두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일을 하는 영광스런 직분을 갖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쟁을 하는가. 공산당도 이겼는데 돈 앞에 무릎 꿇은 한국 교회가 안타깝다. 가난하면 먹이면 되지만 썩은 것은 안 된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니 오용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돈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 어느 단체에서 총회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어느 교회당에서 하자 했더니 총회장님을 어떻게 교회로 모십니까 호텔로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개도 웃을 발언이 나온 적도 있다. 목적 변경은 범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성도들의 헌금을 연합기관의 장이 되기 위한 선거 비용으로 썼다면 8계명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영성도 이성도 다 떠났다면 지나친 진단일까. 하나님과 성도를 무시한 지도자의 중착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 아니면 교회의 책벌을 받아 영원히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까지 가게 될까 두렵다. 상대방의 눈을 뽑기 위해 내 눈을 뽑겠다는 식은 이성도 지성도 영성도 마비된 자의 행태다.

영성이 없는 함량이 미달된 자가 지도자라고 우쭐대는 모습은 겸손히 기도과 자기회생이 필요한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지 않은가. 한국 교회가 다 썩은 것은 아니다. 희생과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종의 모습으로 목회 잘하시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한기총을 해체하면 안 된다. 나라가 부패했다고 해체하면 그 백성들 어찌할까. 한기총은 애국 이상으로 교회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기구다. 칼빈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어도 분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연합체의 지도자들이 목회 하듯 섬기면 그리고 편법이 아닌 진리의 정도를 걸으면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법정 고발이 성경적인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한편 강도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또 다른 강도는 천국에 갔다. 제발 성경이 금한 세상 법정투쟁은 중단하고 내 잘못입니다 하는 경직된 회개만이 자신은 물론 한국 교회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성금 찾아온 초여름 날씨와 함께 반갑게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8층 식당이 완전 정상화 되어 운영됩니다. 배식시간은 오전 11시~오후1시30분 입니다.

찬양예배는 교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들께서는 꼭 참석하시고, 온 성도들은 대면교육이 완전히 재개되는 이 중요한 때에 교육부서의 부흥과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522\\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522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리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

## “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

**■ 학개 2:1-9**  
 다니엘은 절망의 시기에 태어났으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삶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소년시절에 나라가 망하는 광경을 목도했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최고가 됩니다. 이전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나중의 영광이 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나라를 보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갖고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반발과 저항, 모함과 방해가 많았고, 결국 성전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때 학개는 지도자들과 백성을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역에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클 것이라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1. 지친 사람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제1차 귀환민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로 방치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애 1:1) 백성들은 먼저 성전 재건에 착수했지만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대적이란 북왕국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맹렬하게 훼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사를 중단시켰고 시간이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백성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생활의 곤고함, 재건의 막막함, 반대자들의 훼방, 페르시아의 무관심 등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지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렬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자기들은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려움과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중심이 회복되고 예배생활이 정상화되어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2.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추상같은 지적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감동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기가 다리오왕 2년 6월24일이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그는 사태를 살피고 과거 고레스왕이 성전공사를 허락한 문서를 찾아 확인하고 성전 공사재개를 허락하며 막대한 재정지원도 허락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을 결심하니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 믿음으로 마음 굳세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삶을 자랑하던 욥에게 물으십니다. ‘땅의 물이 안개가 되게 하고 그 안개가 구름이 되어 비가 내려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을 그대가 할 수 있는가? 네가 악어를 길들이고 독수리가 네 명령을 듣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 사역에 발 벗고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3.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규모와 내용이 왜소하고 가난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건축 시작할 때 주춧돌이 놓인 것만 보고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가?’라며 실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9절) 비록 보잘 것 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위대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순전한 예배와 눈물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결함과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에 진정한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충성, 순전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 헌신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삶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임상헌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시 1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4(시 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83(8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학 2: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	354(39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 2:9)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찬 양 예 배

-교사 헌신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김혜언 장로, 설교: 홍인중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잠 1:7-9 ... 인 도 자
찬 송 .....	570(453) ... 다 함 께
기 도 .....	송미령 권사
찬 송 .....	461(519) ... 다 함 께
성 경 .....	요 13:12-17 ... 옥중호 집사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선생이 되어 밭을 썼었으나” ...	설 교 자
특별찬양 .....	교사 특송
* 찬 송 .....	462(517)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안용곤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송미라 권사	II부: 석춘희 권사
성 경 ... 행 22:30-23:1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담대하라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화2
설 교 .....	손달익, 전재홍 목사

## 새벽기도회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 모 임

1. 홍해작전 본부회의 / 22일(주일) 오후 12시20분 802호
2. 스테반 임원회의 / 22일(주일) 오후 1시15분 609호
3. 권사 월례회 / 22일(주일) 3부 예배 후 101호
4.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 28일(토) 오후 3시 101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두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6월 19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6월 4일(토)
    - 세례 교육 : 6월 5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6월 12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양영자	2-9	리브가	본인	오균호	3-4	베드로	김순진
김옥선2	3-4	뵤뵤	김순진	오지훈	교육1국	초등부	김순진

### 13. 이번주 심방 일정

1-5, 2-8, 2-9, 4-1, 4-2, 5-4, 7-8, 8-4 다락방

### 14. 홍인중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신학대학원장 역임

오늘 교사 헌신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홍인중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장 례

1. 故 지종필 권사(1교구 김성용3 성도의 모친, 정민자 성도의 시모) / 5월19일(목) 별세, 5월21일(토)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12명	422명	1,934명	382명	1,981명

## ☛ 박해의 위기

한문으로 위기(危機)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그러므로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기독교는 박해의 연속이다. 정치적 권력자들로부터 사상적 박해에서 타다 남은 부지깅 이처럼, 베어버린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처럼 겨우 남아 오늘까지 연명해 온 종교다. 그러나 박해 중에서 정절을 지켜 더욱 성결케 되었고 새롭고도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게 되었다. 20세기 문명사회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면 의아해 할지 모르나 오늘 의 한국 교회는 수다한 박해 속에서 믿음하고 있다. 외부적 압력이나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물질과 명예의 박해와 자량과 안일의 유혹 앞에 한국 교회가 무릎을 꿇고 있다면 헛소리라 할 것인가.

박해를 이기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 밖에 없는 줄 알고 닦쳐오고 있는 박해를 십자가를 통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